

## 국내 뉴스

### 1. 대한항공, 호주전문지 선정 '올해의 화물'·'북아시아 톱' 항공사



대한항공은 호주 항공·여행 전문 매체 '에어라인 레이팅'의 '2023 에어라인 엑셀런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최고 화물 항공사'와 '북아시아 베스트 항공사' 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 매체가 뽑는 '올해의 톱 20 항공사' 부문 4위에 올랐다. 1~3위는 에어 뉴질랜드,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이다. 에어라인 레이팅은 매년 세계 440여개 항공사의 안전과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올해의 최고 화물 항공사' 선정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해상 운송 적체 상황에서 여객기를 화물 전용 항공기로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잉 737-8, A321-네오 등 신형기를 적극 도입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에어라인 엑셀런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화물 항공사'와 '아시아지역 장거리 노선 최고 항공사' 상을 받은 바 있다.

제프리 토마스 에어라인 레이팅 총괄 편집장은 "대한항공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큰 상을 받은 것은 팬데믹 기간 글로벌 화물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동시에 여객 서비스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2. 에어프레미아, B787-9 5호기 도입...미주·유럽 노선 강화한다



에어프레미아가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 호기를 도입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5 호기는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노선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미주·유럽 등 장거리 비행에 투입된다.

B787-9 는 1 만 5500 km의 운항 거리를 자랑하는 중장거리 기종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생 항공사로는 이례적으로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대형 기재를 도입해 운항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탄소복합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높고, 편의 기능이 개선된 최첨단 기재로 꼽힌다.

에어프레미아는 2027 년까지 최소 15 대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확보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에는 B787-9 4 대를 도입한다.

금창현 에어프레미아 여객사업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B787-9 드림라이너 최신 기재로 45 호기를 연이어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4 대의 항공기 추가 도입을 예고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장거리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노선과 편안한 비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7 일 인천~방콕 정기노선 운항을 개시하고 취항식을 개최했다. 지난 4 월 한달간 방콕 특별노선을 운항한 데 이어, 5 월부터는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여행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3. 장거리 늘고 단거리 줄고...엇갈리는 2분기 항공사 실적

#### 국적항공사 2023년 1분기 국제선 실적

\*출처=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여객=유임+환승, 출도착 기준, 2019년과 2023년 1분기에 모두 국제선을 운항한 국적사에 한함.

항공사	공급(석)	회복률	운항(편)	회복률	여객(명)	회복률
대한항공	3,289,020	52.4%	16,338	61.4%	2,716,510	53.9%
아시아나항공	2,083,535	52.4%	9,228	53.5%	1,728,725	51.2%
제주항공	1,817,769	74.0%	10,025	77.1%	1,662,487	76.1%
진에어	1,383,999	78.9%	6,081	79.3%	1,239,502	79.7%
에어부산	863,956	75.1%	3,992	69.1%	758,430	77.5%
티웨이항공	1,369,806	88.7%	6,573	80.4%	1,236,767	93.8%
에어서울	363,545	62.3%	1,793	60.0%	329,989	62.4%

2분기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적이 엇갈릴 전망이다. FSC는 미주와 유럽 노선의 여객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LCC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의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2분기 별도 기준 대한항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조3473억원과 3026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74%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27.08%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LCC들은 FSC 대비 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매출액 3533억원에 영업이익 18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6.34%, 74.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티웨이항공도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23.84% 줄어든 2732억원, 영업이익은 62.66% 감소한 308억원이 전망된다.

2분기 여객은 1분기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1월 383만명, 2월 372만명, 3월 38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어 2분기인 4월은 402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국제선 여객 이용객은 291만명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 274만명 대비 6.13%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노선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FSC와 LCC의 실적도 엇갈릴 전망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을 통해 지난달 미주와 유럽을 오고간 여객은 각각 44만6554명과 33만3882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5.4%, 20.88%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134만명과 172만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45%, 3.91% 감소했다. FSC의 주력인 미주와 유럽 노선 이용객은 증가했다. 하지만 LCC의 주요 노선인 일본과 동남아는 줄었다. 중·장거리가 증가했지만 중·단거리는 감소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4. 에어부산, 7년 연속 국제선 시간 준수성 ‘최상위’ 평가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7년 연속 '시간 준수성'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항공사'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에어부산은 24일(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국제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A\*\*'를 부여받으며, 국적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목) 밝혔다. 에어부산은 이번 평가로 2016년부터 2022까지 7년 동안 매해 이 부문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놓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항공사'로서 다시 한번 이용객들의 신뢰를 쌓게 되었다.

에어부산이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대표부터 일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서비스 등 전 부문에서 최상의 품질 유지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사적 노력을 이어온 결과로 평가된다.

에어부산은 이러한 전사적 노력을 바탕으로 ▲7년 연속 정시성 최상위 평가 ▲국적 항공사 유일 최근 10년 항공기 사고·준사고 0건 ▲국토교통부 '가장 안전한 항공사' 표창 3차례 수여 등 최고 수준의 신뢰성, 안전성을 갖춘 항공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5. 티웨이항공, 국내 LCC 중 홍콩 노선 첫 재운항





티웨이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닫혔던 하늘길을 넓힌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멈췄던 인천~홍콩 정기노선을 7월 14일부터 국내 LCC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운항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년말 첫 취항한 인천~홍콩 노선은 평균 75%의 탑승률을 보이며 고객들이 많이 찾았던 노선이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홍콩은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번 티웨이항공의 재운항을 통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티웨이항공은 홍콩 노선 재운항을 기념해 편도총액 17만41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6월 6일까지 진행한다. 더불어 일반 항공권 예매 시 '홍콩'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5% 할인이 가능하며, 왕복 예약 시 1만원 할인 쿠폰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닫혀 있던 홍콩 노선을 국내 LCC 중 가장 먼저 운항하며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며 "철저한 안전운항 체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운임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6. 대한항공-델타항공 태평양 노선 JV 5년...“노선 확대 성과”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가 출범 5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1일 출범한 JV는 항공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한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코드셰어'를 넘어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대한항공은 JV를 통해 ▷미주~아시아 운항 노선 확대 ▷연결편 예약·발권 편의성 및 스케줄 증대 ▷환승 연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과 운항, 정보기술(IT), 객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사는 인천~미국 노선에서 매일 18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주 290여 개, 아시아 44개국 80여 개 도시를 환승으로 연결한다.

양사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현재 하루 2000여 명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5년간 JV는 한국, 미주, 아시아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했다”며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과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발전하는 JV가 되겠다”고 말했다.

피터 카터 델타항공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양사 임직원의 헌신으로 JV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고의 협력 단계가 어떻게 지속될지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7. KAI, 수소연료항공기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나선다



KAI를 포함한 11개 기관은 30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킵오프(Kick off) 회의를 진행했다고 KAI가 31일 밝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중장기 과학기술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KAI가 참여 예정인 '첨단 모빌리티'사업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미래 커뮤터기체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과제다. 커뮤터기는 19인승급 근거리 도시 간 왕복 여객기다.

사업은 경남과 울산이 포함된 초광역협력형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주관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55억원이 지원된다. KAI는 올해 1월 발표한 'Global KAI 2050'비전에서 '미래 에어모빌리티'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소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KAI는 이번 사업에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 저탄소·저소음·고성능 커뮤터기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요구도 설정과 기술실증을 위한 시험평가 등을 맡는다. 탄소제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기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외에도 자체 투자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 친환경 비행체인 수직이착륙무인기 NI-500VT(Night Intruder-500 Vertical Take off & Landing)를 개발 중이다.

또 미래형항공기체 AAV(Advanced Air Vehicle) 핵심기술인 전기분산 추진시스템, 프로토타입 최적 형상 설계를 선행연구 중이다. 올해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축소기 시험비행을 통해 비행제어 로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상준 KAI 미래비행체연구실 상무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KAI가 항공기 체계종합 기업으로 미래 항공기 플랫폼 개발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해외 뉴스

### 8. 中·아프간 협력 강화...직항노선 여객기 운항 3년만에 재개



중국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직항노선 여객기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신화통신과 아프간 방송 톨로뉴스 등은 24일(현지시간) 아프간 수도 카불 소재 카불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국적항공사인 '아리아나 아프간 에어라인' 여객기 한 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성도 우루무치를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간 직항노선 여객기 운항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문에 3년 전 중단됐다가 이날 공식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아리아나 아프간 에어라인은 현재 이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이 항공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운항하며, 여객기는 카불에서 우루무치로 갔다가 당일 되돌아온다.

굴람 자일라니 와파 아프간 수송민간항공부 차관은 이날 카불국제공항에서 열린 운항 재개 행사에서 항공기 운항은 아프간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국 간

정치적·상업적 관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아프간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도 항공기 운항 재개를 확인하면서 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운항 재개는 아프간 상공회의소(ACCI) 측이 광물 채굴 분야에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달라고 촉구한 뒤 이뤄졌다고 톨로뉴스는 전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9. 에어뉴질랜드, 탑승 전 승객 몸무게 쟀다



뉴질랜드 국적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가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조사한다.

CNN은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AA)이 에어뉴질랜드에 탑승객 몸무게 검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CAA 요청에 따라 에어뉴질랜드는 오는 7월 2일까지 오클랜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는 전체 항공기 적재 중량, 무게 분산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에어뉴질랜드 적재통제개선 전문가 알레스테어 제임스는 성명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이들과 물품의 무게를 잰다"면서 "화물부터 기내식, 승객들이 부친 짐 등 모두의 무게를 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탑승객, 승무원, 기내 수하물의 평균 무게도 산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에어뉴질랜드는 승객들이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모든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현장에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람이 직접 몸무게를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 기간 탑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전자 저울에 올라 무게를 재야 한다. 몸무게는 그러나 수속을 진행하는 직원 모니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곧바로 설문조사를 집계하는 터미널로 이동해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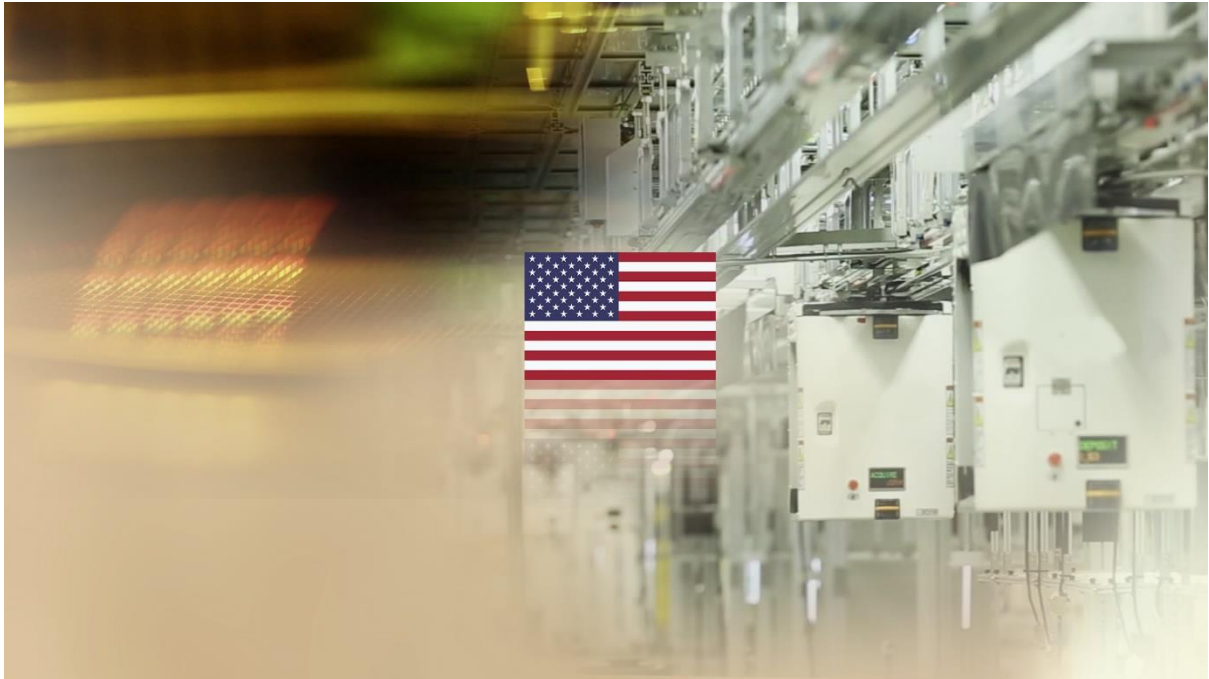
승객들은 아울러 또 다른 저울에 자신들의 짐을 올려 무게를 재야 한다.

에어뉴질랜드가 승객 몸무게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국내선 탑승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제선 탑승객 몸무게 조사는 팬데믹으로 지연됐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10.미국과 중국 오가는 항공편, 코로나19 이전 6% 불과...러 비행제한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에도 미국과 중국 본토를 오가는 항공편 수가 과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영향이 항공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중국 항공정보업체 배리플라이트 통계를 인용해 올해 5월22일 기준 미국과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대만 제외)를 오가는 항공편의 수가 2019년 일일 평균 대비 5.6%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같은 서방 국가인 영국, 독일과 중국 본토를 오가는 항공편의 수가 각각 72.1%, 44.3%까지 회복된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상황은 특히 이례적이다.

반면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항공편 재개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2019년 수준의 90% 이상을 회복했다. 이집트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항공편이 더 늘어 2019년 동일 대비 116.7%를 기록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